

어촌뉴딜 연계방안을 통한 경관디자인 개선방안 연구

- 강원도 양양군 기사문항 어촌뉴딜 300 사업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 of landscape design through
the connection plan of fishing village new deal**

- Focusing on the fishing village New Deal 300 in Yangyanggun, Gangwondo-

주저자

이종호 (Lee, Jong-ho) kwcon@kduniv.ac.kr

경동대학교 토목공학과 부교수

Associate Professor of Kyungdong University

투고일	2020.10.28	심사일	2020.10.29	게재확정일	2020.10.31
-----	------------	-----	------------	-------	------------

이 논문은 2020년도 경동대학교 교비연구비로 연구되었음.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Kyungdong University Research Fund, 2020.

어촌뉴딜 연계방안을 통한 경관디자인 개선방안 연구

- 강원도 양양군 기사문항 어촌뉴딜 300 사업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 of landscape design through the connection plan of fishing village new deal

- Focusing on the fishing village New Deal 300 in Yangyanggun, Gangwondo-

목 차

1. 서론
 - 1-1. 연구 배경 및 목적
 - 1-2. 연구의 필요성 및 범위
 2. 어촌뉴딜을 위한 기초분석
 - 2-1. 어촌뉴딜에 대한 인식 분석
 - 2-2. 어촌 활성화 사례
 - 2-3. 양양 기사문항 어촌 뉴딜 사업분석
 3. 경관디자인 추진 계획
 - 3-1. 경관디자인의 목적
 - 3-2. 어촌 뉴딜 연계 실현방안
 - 3-3. 경관디자인 개선방안
 4. 결론 및 제언
- 참고문헌

Abstract

The Fishing Village New Deal 300 project is a national project for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to develop underdeveloped fishing villages and fishing ports from 2019 to 2022 according to regional characteristics.

This study studied the policy of local residents' regional competency enhancement projects and the trends of education-related projects to achieve the results of the local fishing village New Deal.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and policy goals of the Fishing Village New Deal 300 project.

Based on this, the goal is to research to enhance the diversity and expertise of the regional competency enhancement (S/W) project on the plan to revitalize the fishing village of Yangyang-gun article questions.

In the case of urban fishing ports, more than half of the residents are occupied by urban residents who do not engage in fishing. In reality, traditional communities are being disbanded.

This study proposed a landscape design for sustainable urban fishing port regeneration to transform into an urban fishing port with new functions through active development of a waterfront space, and a regional fishing port with complex functions utilizing economic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The proposed fishing village landscape plan and regional capability enhancement program should strengthen the locality of the fishing village. It should be promoted in a way to express the unique identity of each urban fishing village and a resident participatory design strategy in which residents directly participate.

The study was conducted as a sustainable data that can contribute to the vitalization of fishing villages as a part of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by improving the settlement environment of the fishing village residents to make the fishing village where they live and want to find.

keyword

Fishing Village New Deal, regional community competence programs, Job Creation, Landscape design

논문요약

어촌뉴딜 300 사업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해양수산부가 낙후된 어촌과 어항을 지역 특성에 맞게 개발하는 국책사업이다. 본 연구는 지역의 어촌뉴딜 성과 달성을 위한 지역주민의 지역역량강화 사업의 정책과 교육관련 사업의 동향을 살피고, 어촌뉴딜 300 사업의 현황과 정책목표를 이해한 후, 양양군 기사문학의 어촌 활성화 방안 관련 지역역량강화(S/W)사업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연구에 목표를 두고 있다.

도시어항의 경우 주민의 과반수이상 어업활동을 하지 않는 도시민으로 채워져 실제로는 전통적 공동체가 해체되고 있으며 먹거리 위주의 획일적 개발로 지역별 정체성을 상실한 어촌 경관이 형성되고 있다.

본 연구는 수변공간의 적극적 개발로 새로운 기능을 가진 도시어항, 경제적·문화적 특성을 살린 복합기능의 지역어항으로 변화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어항 재생을 위한 경관디자인을 제시하였다. 제시한 어촌경관계획 및 지역역량강화 프로그램은 어촌고유의 지역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 참여형 디자인 전략과 각 도시어촌이 갖고 있는 고유의 정체성을 표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어촌 지역민의 정주 환경개선으로 삶의 질을 제고하여 살기 좋고, 찾고 싶은 어촌지역을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어촌지역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속 발전 가능한 자료로 연구되었다.

주제어

어촌뉴딜, 지역역량강화, 일자리 창출, 경관디자인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어촌뉴딜 300은 해양수산부 국책사업으로, 2019~2022년까지 3년간 300개소를 선정 진행되는 어촌 환경 개선 사업이다. 어촌뉴딜 300은 어촌이 보유한 핵심자원을 활용하여 차별화된 콘텐츠를 발굴하고 어촌·어항 통합개발을 통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며 어항 및 항·포구를 중심으로 인접한 배후 어촌마을까지 포함한 통합개발로, 사회·문화·경제·환경적으로 어촌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¹⁾

어촌뉴딜 300은 ①해양레저형 ②국민휴양형 ③수산 특화형 ④재생기반형의 4가지 유형의 사업모델을 제시하고 생활밀착형 SOC 정비를 위한 공동사업인 어항·포구 접안·안전·편의시설 개선등 유형에 따른 특화사업 및 타 부처 연계사업을 복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어촌사회는 전통적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 공동생산·공동분배하는 지역·경제공동체로 발전해 왔으나 급속한 도시화를 거치면서 공공의 이익보다는 개인의 이익 추구가 더 높아지고 있으며 어촌뉴딜 300의 정부정책은 어촌을 구성하는 단위 공간에 각기 목적에 부합하는 분절된 개발방식을 채택하여 인프라만 확충되는 양적 성장만을 가져올 것으로 예측된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역량강화라는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창의성·다양성·심미성을 갖춘 질적성장 도모는 물론 부문별 개발 및 마을 단위 개발의 기존 문제점의 개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어촌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한다.

어촌뉴딜 정책사업의 목표인 어촌·어항의 물리적 시설환경개선과 더불어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연·인문·문화적 경관자원을 통해 지역의 정체성을 새로이 확립하고 어촌경관 관리방안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반 되어야 하는 향후 발전 방향의 연구를 통해 지속가능한 어촌지역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연구목적을 두고 있다.

1-2. 연구의 필요성 및 범위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어촌뉴딜 300 사업에 선

정된 강원권역 어항인 양양군 기사문항을 중심으로 기사문 마을이 보유한 어업, 서핑, 해양보호구역, 천혜의 경관의 지역자산을 통해 사업유형, 사업개요, 개발여건 및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하였다.

이러한 대상지 선정을 통해 어촌의 공간적 특성을 이해하고 사업추진과정에 있어 지역역량강화사업 적용시 경관계획의 위상과 연구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모델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해당 어촌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 문화적, 어촌경관자원을 통해 어촌뉴딜 300 사업과의 연계성을 검토하고 공간환경조성으로 어촌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어촌 경관 분야의 개발방향과 어업인의 소득 창출과 지역 활성화 발전방향을 내용으로 연구하였다. 또한 어촌의 체험마을 조성의 기본 인프라 및 콘텐츠를 개발하여 주민역량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토대를 마련하고, 지역 환경 개선 및 경쟁력 확보, 후속사업으로의 파급효과 극대화, 주민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어촌뉴딜사업의 성공 사례를 창출하고자 하였다.

2. 어촌뉴딜을 위한 기초분석

2-1. 어촌뉴딜에 대한 인식 분석

어촌은 어장과 생산공간, 어업생산기반, 유통가공, 관광 등을 포괄적으로 수용하는 어항의 배후지를 중심으로 밀도 있는 촌락을 형성한다는 측면에서 농촌과는 다른 촌락의 특성을 보인다.

[표1] 농촌과 어촌의 특성 비교²⁾

구분	어촌	농촌
행정구역	읍·면·동 (도시지역 포함 → 도시어촌 존재)	읍·면
경제활동(소유)	어장(어선, 양식, 맨손), 어장은 해면, 염전은 육지에 존재(공유수면 국가 소유, 염전 개인 소유)	경작지(논, 밭, 과수, 초지 등)가 육지에 존재(개인 또는 법인)
경제활동공간소유	共有(공유)	私有(직영 또는 임대)
촌락특성/분포/밀도	공동체 형성/밀집/고밀도	경작지 기반/산재/저밀도

산지 물류 구조	생산→산지거점(어 항)→소비지	생산→소비지물 류센터→소비지
경제활동 공간과 촌락과의 관계	매우 밀접한 관계 (어항, 어장 배후에 촌락이 존재)	연관성 크지 않음

어촌뉴딜 300사업 목적은 어촌이 보유한 핵심자원을 활용하여 차별화된 콘텐츠를 발굴하고 어촌·어항 통합개발을 통하여 사업효과 극대화를 도모한다. 또한

어항 및 항·포구를 중심으로 인접한 배후 어촌마을을 포함한 통합개발로 사회·문화·경제·환경적으로 어촌지역의 활력 도모하는 사업이다.

[표2] 어촌뉴딜 사업내용³⁾

사업유형	사업내용
해양레저형	소규모 레저 및 선박 계류 시설 확충, 레저선박 보급 및 수리시설 설치, 클럽하우스 설치(민자), 해중레저 기반시설 조성, 해중 전망대 조성 등
국민휴양형	바다전망대 설치, 어울림 정원 설치, 어촌마당 스테이(자부담 포함), 갯벌생태공원 조성, 해수풀장(민자), 생태놀이터 조성 등
수산특화형	바다낚시터 조성, 위판장 개선(자부담 포함), 어부장터(마르쉐), 수산물 공동 유통 및 가공센터 설치, 수산특화거리 기반 조성, 맨손잡이 체험 등
재생기반형	어항 유휴공간을 활용한 청년창업지원센터, 방치시설 리모델링, 문화·예술인 창작·전시공간 조성, 청년어장 운영, 어촌 살아보기 주거 지원 등

2-2. 어촌 활성화 사례

2-2-1. 일본 도쿠시마현 ‘이자리마을’⁴⁾

일본 시코쿠(四國) 지방 도쿠시마(德島)현은 ‘도쿠시마에서 어부가 되자’는 슬로건을 내걸고 귀어(歸漁)인구를 유치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고령화와 이촌 등

으로 인해 어촌인구 감소와 지역 침체가 날로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실감케 한다. 귀어 인구 유치를 위해 도쿠시마현은 어업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어업 후계자 양성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도쿠시마(德島)현 미나미초(美波町)에 있는 ‘이자리(伊座利)’마을은 특화어촌체험 프로그램으로 정주어촌의 생명력을 이어가고 있다.

마을을 살리기 위해 학생 인구 유치를 위해 바다체험 및 생태 교육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운영하고, 해녀 학교도 개설했다. 주민들은 ‘이자리의 미래를 생각하는 추진협의회’를 만들고, 특화마을 육성 및 정주어촌 건설에 힘을 모았다. 가장 주목을 끄는것은 ‘가족이 함께하는 단기 어촌유학제도’이다.

어촌 유학은 카누, 크루즈 체험, 바다 낚시, 스쿠버다이빙, 정치망 어업 체험, 낚치 치어 방류, 음악 운동회 등 다양한 바다·어촌체험과 연계되고, 시골 어촌의 독특한 유대 및 인간관계, 커뮤니티 교육 등과도 결부된다. 어부 등으로 종사하기 위해 전입을 원하는 사람을 주민 협의체에서 직접 상담, 아이와 함께하지 않는 부모나 지역에 적응하기 어려운 사람은 전입을 제한하는 것도 이자리 마을의 특징이다.

2-2-2. 일본 가나가와현 ‘마나스루마을’⁵⁾

일본 가나가와(神奈川)현의 인구 8,900명의 작은 어촌마을인 마나스루 작은 항구마을은 공동체를 형성하고 ‘미의 조례’라는 법이 있다.

마나스루 마을 주민들은 1980년대 후반부터 일어난 난개발로부터 마을을 보호하기 위해 도시미관에 대한 삶의 규칙을 만들었다. 법률가, 디자이너, 건축가, 공무원, 주민이 ‘미 프로젝트 팀’을 만들어 만 2년 동안 미의 기준을 집필해 1993년 주민들에게 배부했다. 미의 기준은 조용한 마을길, 청정한 바다, 초록 마을 숲, 반딧불, 개방적 발코니 등을 중심 키워드로 기준삼아 주민들은 마당을 가꾸고 돌담을 교체할 때도 ‘미의 조례’를 참고 해야한다. 평범한 어촌의 성격을 그대로 살린 ‘드러나지 않는 디자인’, ‘무개성이 곧 개성’이라는 주제로 실질적인 경관 형성을 위하여 마을 횃집 등 상업시설의 무간판, 건축물군의 유사색채사용 및 자연재료를 적용하여 관광 자원화한 어촌의 사례이다.

2-2-3. 이탈리아 ‘친퀘테레’

이탈리아 북서부의 리구리아(Liguria) 주에 위치하는 라 스페치아(La Spezia) 지방의 5개 해안 마을로 주변의 언덕은 친퀘테레(Cinque Terre) 국립 공원으로 보호되고 있으며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친퀘테레의 마을과 마을을 잇는 길은 10여km가 넘는다. 이탈리아 북부에서만 볼 수 있는 경사 지형의 포도밭과 올리브밭을 자연경관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포도 경작지를 유지, 보존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도시계획적 성격을 갖는 친퀘테레 계획에는 경관보전에 초점이 맞추어진 경관 형성 계획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 많은 문인들은 이곳 친퀘테레 와인에 반해 ‘달의 와인’이라는 찬사를 남겼다.

해안마을의 역사적인 전통과 건축물의 문맥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의 재료를 분석·실험하여 전통적인 색채를 지정, 전통적인 벽돌과 돌쌓기 마감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밀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신축 또는 증·개축 시 이를 지키도록 하고 있다.

장소성을 가지기 위한 어촌개발의 성공사례들은 지역주민이 함께 어촌이 가지고 있는 인문학적 경관을 찾아 이를 보전하고, 어촌 고유문화를 담아 이야기가 있는 장소로 만들기 위해 어촌의 자체적인 규칙과 규약을 마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어촌마을로 만들어나가고 있다.

2-3. 양양 기사문항 어촌 뉴딜 사업분석

2-3-1. 사업추진 배경 및 목적

양양군 기사문항은 기사문항은 동해안의 대표적인 서핑 명소인 기사문 해변과 인접해 있어 해변 방문객들의 항구 유입을 통한 관광 활성화가 가능한 지역이다. 기사문 해변은 수심이 낮고 파도가 높아 서핑에 최적의 환경을 가지고 있으나 서퍼를 위한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커뮤니티 공간, 안전시설과 편의시설 확충으로 해양관광기반 시설조성이 필요하다.

기사문항은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체험·테마 관광개발을 중심으로 지역 활성화 기반을 마련해야 하며 해양관광의 거점지역으로 연계사업을 통한

시너지효과 창출의 마중물 사업 프로젝트, 지역의 잠재력을 발현시킬 수 있는 주민참여에 의한 지속 가능한 어촌 만들기 프로젝트,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정주기반 및 어항정비의 사업이 필요하다.

기사문항은 어항 및 항·포구를 중심으로 인접한 배후 어촌마을을 포함한 통합개발로 사회·문화·경제·환경적으로 어촌지역의 활력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2-3-2. 사업 비전 및 추진전략

기사문항은 과거 분단의 역사를 기억하고 현재 서핑의 즐거움을 느끼는 ‘SURFING with 38’을 목표로 머무르고 싶은 체험형 관광·휴양공간으로 개발 조도 및 해양보호구역, 주변 평화마을 등 권역의 다양한 자원들을 활용하여 내방객들이 과거의 단순 자연 관광 유람의 관광에서 벗어나 체류 테마형, 체험형 관광형태로 유도하는 마을 주민의 자립형 관광 어촌 마을로 기획하였다.



[그림1] 양양군 기사문항 어촌뉴딜300 기본구상

본 사업내용을 분석한 결과 모호한 추진전략과 사업별 실현 가능성 검토가 부족하며 세부 사업별 시설 물량 및 사업비 부적합, 각 사업별 운영주체·운영방안 등에 관한 구체적 계획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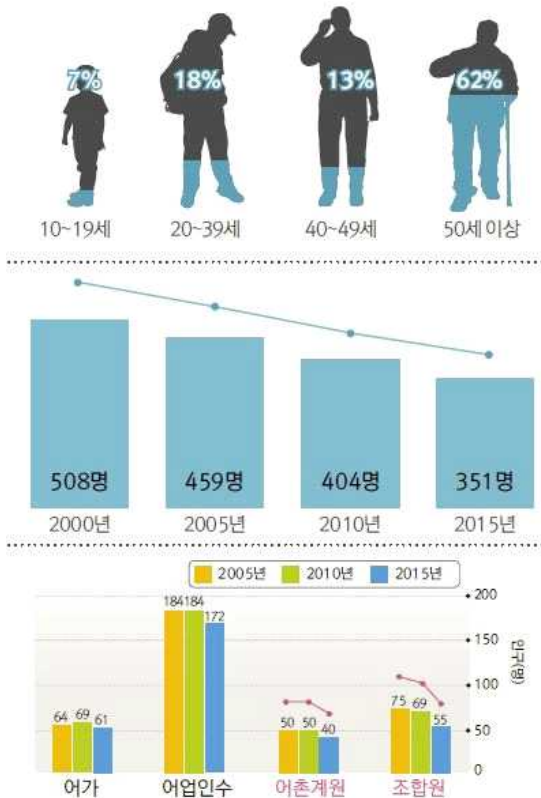
또한 하드웨어 중심의 관광시설 계획의 집중으로 관광객이 원하는 체험프로그램 등이 미흡하고 마을기업 육성을 통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아이템이 필요하다.

3. 경관디자인 추진 계획

3-1. 경관디자인의 목적

대상지 입지는 38경계선 바로 위에 위치하고 있어 남북 분단의 역사적 장소이며 양양 서핑 발상지로서 현재 서핑숍 10개소 운영중에 있다. 자가용을 이용한 7번 국도를 통한 진입이 가능하나 진입로가 협소하고 주차 구분이 없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진입로 개선 필요하다.

양양군의 인구밀도는 43명/㎢으로 강원도 전체(90명/㎢)보다 훨씬 낮고 기사문리의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인한 어촌지역 활력 및 노동력이 감소되고 있다.



[그림2] 양양군 기사문항 인구 및 어업현황

현북면의 평균연령은 55.8세로 양양군 내에서도 높은 축에 속하며 고령화로 인한 자연적 감소 및 취업 및 농어촌으로의 이농 현상이 인구 감소의 주된 요인이다. 기사문리 전체 어가 인구 감소폭에 비례해 어촌계원과 조합원의 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어 가고싶고 살고싶은 혁신어촌으로의 발전이 매우 필요하다.

어촌은 다양한 해양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성장 잠재력이 풍부하나 잠재력을 발현시키고 이를 통해 어촌의 혁신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기본적 인프라 및 콘텐츠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에 어촌지역을 활력이 넘치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어촌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지역 역량강화 프로그램이다.

지역역량강화 프로그램은 어촌뉴딜사업의 추진 절차에 따라 천혜의 자연경관 및 수산자원을 보유한 기사문항을 중심으로 여객편의시설 및 어항시설 정비로 어업인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소득기반사업과 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어업인의 소득 창출과 지역 활성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또한 어촌의 체험마을 조성의 기본 인프라 및 콘텐츠를 개발하여 주민역량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토대를 마련하고, 지역 환경 개선 및 경쟁력 확보, 후속사업으로의 파급효과 극대화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어촌 뉴딜사업의 성공사례를 창출해야 한다.

3-2. 어촌 뉴딜 연계 실현방안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의 타당성 검토 및 도입가능한 프로그램 결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를 통해 실현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그림3] 타당성 검토 프로세스

어촌뉴딜 300사업 개발수요 조사를 위한 기사문리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3] 어촌 뉴딜 연계 주민의견 설문조사

사업유형	조사내용
<p>공통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항시설 기타어항시설 안전시설 외곽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순위 : 어항시설 개선(36%) 2순위 : 기타어항시설(28%) 3순위 : 안전시설(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구창고 낙후로 인한 어업활동에 지장 가로등 시설 및 조명 시설이 미비하여 안전문제 발생 우려
<p>특화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레저·체험 경관개선 휴식·휴양 문화·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순위 : 레저·체험(32%) 2순위 : 경관개선(25%) 3순위 : 휴식·휴양(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광객(서퍼)를 위한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 부족 기사문항만의 특화된 관광 활성화 요소 필요
<p>S/W 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 홍보 마케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순위 : 교육(44%) 2순위 : 홍보(30%) 3순위 : 마케팅(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 필요 마을을 찾는 관광객을 촉진시키는 홍보 지역 이미지, 자원을 활용한 컨설팅 필요

설문조사 결과 어촌 뉴딜 연계 사업과의 실현방안을 기사문항 주민을 위한 정주환경 개선 사업과 방문객을 위한 특화사업, 지역가치 향상을 위한 지역역량 강화사업의 필요성이 도출되었다.

3-3. 경관디자인 개선방안

어촌뉴딜 사업의 기본계획 시 제시된 어촌 경관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방안을 어촌뉴딜 300 사업의 대상지인 양양군 기사문항의 기본계획에 적용하여 계획의 주요 문제점을 고찰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계획의 타당성 검토 및 주민 설문조사를 통해 어촌 경관계획의 발전방향을 연구하였다. 향후 공간환경 마스터플랜수립 시 어촌경관의 개선 및 공간환경의 질

을 높일 수 있는 통합된 어촌 활성화 유도방안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3-3-1. 기본 구상

양양 기사문항의 어촌뉴딜300의 사업분석을 통해 사업내용을 분석한 결과 [표4]와 같이 보완 및 신설이 필요하다.

[표3] 사업계획의 기본구상

기존사업계획	기본 구상
1) 방파제 미관개선	사업효율성을 고려하여 도색과 부조를 활용한 연출
2) 어구창고 신설	기존항구와 조화, 사용자의 동선 등을 고려하여 계획
3) 종합안내사인	정체성이 반영된 종합안내사인 시스템 디자인 계획
4) 전망타워	어촌체험센터와 연계하여 추진
5) 어촌체험센터	주변 시설과의 관계고려 및 상징적 디자인 필요
6) 해뜨는 전망쉼터	해변가 관광객을 위한 파고라 설치



[그림4] 기본 계획 Master Plan

3-3-2. 세부계획 디자인

1) 방파제 미관개선

기사문항 방파제 내측 직벽으로 미관이 불량하여 어업인 생활환경 및 관광어항으로 쾌적한 이미지로의 변환이 필요하며 어촌 마을 감성을 살린 벽화 조성으로 계획하였다.



[그림5] 방파제 미관개선 디자인

2) 어구창고 신설

공간 효율성이 저하되는 어구창고 위치로 인하여 통행에 방해가 되며 청결하지 못한 이미지 개선이 요구되며 이색적인 체험거리 조성이 필요하다.



[그림6] 어구 창고 디자인

3) 안전시설

종합안내사인물을 통한 관광성 증진 및 관광객 이용 편의성을 확대해야 한다.



[그림7] 안전시설 디자인

4) 해양보호구역 전망타워

대상지는 분단의 역사적 의미성이 있는 38선 휴게소와 서핑의 명소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38의 의미성과 해양보호구역과 연계한 전망타워가 필요하다. 또한 방문객에게 기사문만의 체험 관광요소를 제공하여 특색 있는 관광요소로 자리매김 할 수 있고 기사문 해안을 한 눈에 감상할 수 있는 수려한 랜드마크형 전망대 조성이 필요하다.



[그림8] 해양보호구역 전망타워 디자인

5) 어촌체험센터

노후되고 방치된 어촌계 회센터를 리모델링하여 새로운 지역민 소득 공간으로 활용성을 높이는 계획이 필요하며 수익기반 관광요소로 마을주민들의 수익창출 가능한 센터로 조성되어야 한다.

바다를 전망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이 필요하며 주민과 이용객이 함께 모이고 사용할 수 있는 만남의 광장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림9] 어촌체험센터 디자인

6) 해뜨는 전망센터

해마다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지만 그들을 피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파고라 조성으로 이국적이고 풍부한 해변 경관 조성 및 바다 이용객의 편의성 증대해야 한다.



[그림10] 해뜨는 전망쉼터

4. 결론 및 제언

어촌뉴딜 300 사업은 어촌이 보유한 핵심자원을 활용하여 차별화된 콘텐츠를 발굴하고 어촌·어항 통합개발을 통한 사업효과 극대화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어촌다움이 묻어나는 지역의 공간환경을 만들기 위한 통섭적 접근방식의 어촌경관계획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어촌 재생사업의 기본계획인 공간마스터플랜 수립 시 어촌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계획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대다수의 어촌사업 목표가 소득향상을 위한 관광 체험이나 해양레저, 축제에 집중되다 보니 외부인의 이용 편의에 우위를 두어 어민과 지역민의 프라이버시나 생활 편의가 소외되지 않도록 이를 바라보는 균형적 시각이 요구되며, 이를 위한 지속 가능하고 통합적인 어촌경관계획의 수단으로서 어촌 개발 및 정비사업과의 정책연계방안과 수립 방향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참 고 문 헌

- 노영란(2008), 해안경관 구성요소의 이미지평가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임성혜(2020), 어촌활성화 유도를 위한 어촌뉴딜 300 사업과의 연계방안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조형창(2013), 부산 도시어항 재생을 위한 수변공간 디자인 연구, 한국해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서수정(2011), 해안마을 관광자원화를 위한 경관형성 방안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박상우(2014), 어촌 그랜드 디자인 개념정립,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박상우(2015), 새로운 어촌종합개발의 개발방향 및 로드맵에 관한 정책연구, 해양수산개발원
- 박상우 외(2019), 어촌뉴딜300 사업성과 평가체계 구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이서구 외(2019), 어촌뉴딜 300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한국어촌어항공단
- 해양수산부(2019), 어촌뉴딜 300 사업 지침 및 가이드라인
- 해양수산부 <http://www.mof.go.kr/>
- 한국어촌어항공단 <http://www.fipa.or.kr/>

- 1) 어촌뉴딜 300 사업 시행지침, 해양수산부, 2019
- 2) 박상우, 새로운 어촌종합개발의 개발 방향 및 로드맵에 관한 정책연구, 해양수산부, 2015, p.19
- 3) <https://www.fipa.or.kr> 어촌뉴딜 300
- 4)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933760> [동해안 어촌의 변신, 현장을 가다] 12, 강원도민일보 2018.10
- 5) 서수정, 해안마을 관광자원화를 위한 경관형성 방안 연구, 2011, p.99-100

